

버린 자 얻고 취하는 자 잃는다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위광(威光)이 엄매임에서 벗어나 만물을 비추니 귀천(貴賤)은 사라지고 만유는 존귀(尊貴)함을 얻습니다. 시방(十方)은 텅 비어 높고 낮은 벽락(碧落)이 없고 곳곳에서 막히고 걸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푸른 용(龍)은 대전세계 밖으로 뛰쳐 나아가고 사자(獅子)는 만길 봉우리 위에서 소리칩니다.

하늘과 땅은 황금빛을 이루어 눈앞에서 만 섬의 구슬을 쏟아내며 물이 대밭으로 흐르니 푸른빛이 우러나오고 바람이 꽃 속을 스치면 향기를 실어 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좋은 날을 만드는 묘용(妙用)이 있으니 버린 자는 얻고 취하는 사람은 잃습니다.

화복(禍福)을 다스리는 기용(機用)을 지닌 사람은 일기일경(一機一境) 속에 무생법락(無生法樂)을 나눌 것이요. 본분(本分)의 철추(鐵錘)로 원통(圓通)의 문(門)을 여는 이는 마음 하나 가지고 새 우주를 지을 것이니 비우지 않고는 일체를 포용(包容)하는 기략(機略)을 얻을 수 없으며 낮추지 않고는 바다 밑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치우치면 일승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융통하면 걸림 없는 자재를 얻을 것입니다.

남마다 좋은날의 기쁨이 눈앞에 있으니 만물은 응색함이 없는 대시문(大施門)을 열고 있네.

지혜의 눈으로 참된 지도자 알아보아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임진년 새해가 성도(成道)의 새벽으로 밝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진리의 빛을 밝히신 날로 새해를 여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분들이 지혜와 자비가 스스로 가득하라는 심심상인(心心相印)의 뜻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두 번의 선거와 북녘에서 전해진 세연이진(世緣已盡)의 소식이 민족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공존과 번영, 평화와 행복에 맞춰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과 북은 공존과 상생의 날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 서도 언제나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공심(公心)과 원력(願力)을 분별하는 밝은 지혜의 눈으로, 국민이 찾으면 일깨심기(一貫十起)하는 참된 지도자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밝은 미래를 향해 진력하고, 시간의 한 편을 담당한 우리로서는 정확한 선택과 판단을 도리로 삼아야 합니다. 조화로운 추구를 하는 것은 큰 미덕이지만 마르고 확실한 결단이 가시적인 미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혜의 눈으로 오늘의 안개를 헤쳐가야 합니다.



무심도인 때 영원한 자유를

해초 스님
태고종 종정



임진년(壬辰年) 벽두에 산문을 여니 유정무정(有情無情)과 산하초목(山河草木)이 전진(全眞)의 법체(法體)로 일불지경계(一佛智境界)를 삼습니다.

제법의 공상(空相)은 생(生)도 아니고 멸(滅)도 아니며 세간상(世間上)에 상주하며 모든 법위(法位)에 머문다 하였으니, 본디 범부와 성인, 정(情)과 비정(非情)이 따로 없습니다.

무릇 법계는 원적(圓寂)한지라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으며, 다만 정이 있고 헤아림을 두기 때문에 일체중생이 거짓으로 그 이름을 기탁(寄託)합니다. 정이 망하고 헤아림이 끊기면 무슨 이름을 능히 세울 것입니까?

소리를 듣다가 문득 도임을 깨닫지만 도에 어찌 소리가 있으며, 색 빛을 보다가 문득 마음임을 밝히지만 마음에 어찌 색 빛이 있으리요.

고인이 이르시되, 유심하면서 평등함이 무심하면서 평등치 아니함만 못하니라 하였으니 올 한해는 사바세계의 일체중생이 낱알 한분도 빠짐 없이 무심도인(無心道人)이 되어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祝願)합니다.

三界熱惱 猶如火宅 (삼계는 뜨거워서 화택과 같으니) 其忍淹留 甘受長苦 (무엇을 애착하여 미련을 둘까) 欲免輪迴 莫若求佛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若欲求佛 佛即是心 (불성을 찾는 것만 같지 못하리) 心何遠覓 不離身中 (불성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마음) 色身是假 有生有滅 (육신은 거짓이어서 생멸이 따르지만) 真心虛空 不斷不變 (진심은 허공처럼 영원한 존재일세)

민족 미래에 불자들 힘 하나로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희망이 가득한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스러운 기운과 용기를 상징하는 용의 해에 이천만 불자와 국민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계층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국민생활이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를 향한 쉬지 않은 발걸음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고 꾸준한 경제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처럼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더욱 단결해온 저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서로 합심하고 단합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000만 불자 여러분!

금년 임진년은 힘차게 승천하는 용의 기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국제질서를 만들어가고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원대한 희망과 포부를 마음껏 펼쳐 보이는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평등한 그 자리 그대로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평등한 그 자리 가고 옴이 없어라 信心不二 不二信心 (신심불이불이신심) 眞如法界 無他無自 (진여법계무타무자) 平等本際 非去非來 (평등본제비거비래) 一心妙圓 自照靈然 (일심묘원자조영연)

믿음은 가르는 것이 아니요, 가르지 않음이 믿음이니 참스러운 세계는 남도 없고 나도 없음이라. 본래 평등 그 자리에는 가고 옴이 없으니 동글고 묘한 이 마음의 신령스런 비춤을 보라.

폭풍우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날려도 구름 위에 늘 빛나는 태양을 보아라. 마음의 고티머리에 휘둘러 탄란하지 말라. 풍운조화 그 속에는 여의주가 있느니라.

희망의 반야용선 띄우는 한 해를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 스님

민족 · 문화 · 세대 · 종교간의 갈등은 더욱 폐쇄적이고 정치상황은 오리무중인 듯 혼란스럽지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우리를 보듬고 지혜광명이 길을 비춰주어 우리 사부대중의 슬기가 나날이 성장하여 흥법호국(興法護國)의 대원력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예지가 지난 반세기만에 이곳 부산 구인사에 다 실현된 바, 임진년에는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불퇴전의 용맹정진을 겸없이 이

어나가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천태종이 대조사탄신백주년을 통해 육일승천을 점검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천태일화(天台一華)가 더욱 만개하여 임진년 새해는 앞으로의 새로운 백년을 기약하는 도약의 해로 상월원각대조사님의 반야용선을 띄우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길러주는 대지와 같은 마음으로 갈등과 불화를 잠재우고,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 희망의 서원을 세웁시다.



부족함 더하고 넘침은 나누길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지난 한해, 우리는 인(因)지어서 과(果)받는 법계(法界)의 가르침에 물질과 정신의 이기(利己), 자만(自慢)으로 여러씩은 진애(眞愛)의 혼탁(混濁)을 더하였는지 돌이켜 참회하고, 이를 경계로 부족함은 수행으로 더하고 넘침은 자비로 나누는 이 땅의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회와 서원, 그리고 수행의 나날은 안주하지 않는 진언행자(眞言行者)의 정진이 되어 가족과 이웃, 국가 사회의 신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우리의 미래에 전

해질 불교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문화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깨달아 이기와 자만, 여러씩은 수행으로 다스리고, 수행의 덕(德)과 복(福)은 희사(喜捨)로 나누는 불교수행의 실천임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임진년 새해, 참회와 서원, 수행으로 복과 지혜가 득하시고 건강하시며, 부족함은 더하고 넘침은 나누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정토 구현하는 정진 심 없길

성초 정사
진각종 총인



임진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법신대일(法身大日)의 서광(瑞光)이 사바세계에 총만하고 진각행자와 모든 불자들에게 서상(瑞相)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동해 진각성지의 서기(瑞氣)가 응도림하여 하늘을 오르고 동쪽 대한(大韓)의 정기(精氣)가 한강의 불가사의를 이루고 있으니 불법(佛法)의 수지(受持)와 육자진언 염송의 공능(功能)입니다.

탐욕으로 진심을 일으키고 여러씩은 이를 부추겨서 괴로움이 따르는 예토(穢土)라 하더라도

불법(佛法)을 체(體)로 삼아 세간을 다스리면 본래 안락의 정토(淨土)가 그 곳에 이루어집니다.

먼저 심지(心地)를 두텁게 하여 종지(宗旨)를 지키고 공(公)을 앞세우며 정도(正道)로 걸어가면

이웃 대중도 그 길을 따라서 종교 정치 사회 등의 갈등과 부조리를 극복하면 세속의 사사(私邪)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희망찬 임진년의 햇살이 밝고 따사롭게 세상의 만상을 평화롭게 살려가듯이 심인정법이 못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더 넓은 세상에 안온처가 되도록 정진합니다.

대비행으로 주변을 밝게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겪는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탐욕과 그로 인한 대립과 반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간의 대립, 국가간의 분쟁은 더 큰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이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국가간의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자연과 사람과의 부조화와 대립은 더욱 큰 재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한 결과로써 우리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재앙의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탐욕과 대립이 빚어낸 결과이며, 결국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고(痼苦)를 치유하는 길은 부처님의 대비정신(大悲精神)을 널리 펼쳐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남이 아니므로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만이 사회와 국가의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고통없는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세계가 불국토가 될 수 있도록 용맹정진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고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한 해의 실천은 하루생활의 온전한 수행에 있습니다.

日日是好日(일일시호일)이요, 人人是好人(인인시호인)이며, 事事是好事(사사시호사)로다. 새해에도 남마다 좋은 날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고 벌어지는 일마다 좋은 일입니다.

'법화경' 영약으로 새 생명을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汝等有智者(여등유지자) 勿於此生疑(물어차생의) 當斷令永盡(당단영영진) 佛語實不虛(불어실불허) 지혜 있는 너희들은 어떤 의심도 품지마라. 마땅히 의심을 끊어 영원히 없앨 것이니 부처님 말씀은 진실이고 헛됨이 없느니라.

미혹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활하여야 하겠습니까. 중생들이 번뇌로 혼란에 빠지고 병에 들어 헤멜

때 부처님께서는 이를 낳게 하는 약을 지어 주어도 중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겨 유언으로 방편을 쓰고 중생들로 하여금 이 영약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생들을 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마음의 병,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병으로 우리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만들어 준 (법화경)의 영약으로 새 생명을 얻고, 임진년을 시작합니다.



이웃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 정사

지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많았던 해입니다. 특히 경제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이며 당분간 그러한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참된 행복의 지혜를 갖고 닦지 못하고 물질 위주의 행복만을 추구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 세계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충실해야 하며 자신을 잃지 말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항상 정도를 받들며 사회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정신을 펼쳐 나가면 지금의 어려움은 도리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보살님의 가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덕이 총만하고 지혜와 자비가 한층 증진되는 한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정직에 바탕한 소통 늘리자

법진 스님
선학원 이사장



지난해도 우리 교계는 애환이 교차하고 곡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대중과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면 병폐와 부작용이 따릅니다. 반면 지구촌 작은 생명 순결 하나마저 소중히 여길 때 대중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세상은 중연소생(衆緣所生)이므로 여럿의 인연이 하나로 결합할 때 비로소 만물이 큰 힘을 얻고 군생(群生)이 축복의 삶을 삽니다.

조비천제부지천(鳥飛天際不知天)하고 어약상수미식수(魚若上水未識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구만리장천을 이리 저리 날지만 하늘을 알지 못하고, 고기가 물위를 뛰놀지만 물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중연소생의 이치를 모르므로 세상에 갈등과 대립을 키웁니다.

큰 깨달음은 작은 규범에 얽매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불교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르면 정도가 솟아나고 생각이 삿되면 그르침이 따릅니다.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 건설은 바른 생각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대중과 사회와의 소통은 이러한 정직함에 기인해야 합니다.

언구(言句)가 따스하고 지행(知行)이 합일하는 순일함을 보여야 대중이 감동하고 사회가 따스하게 변화합니다.

만 가지 생명이 모두 개개의 부처님입니다. 임진년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지남(指南)을 우뚝 세워 희망찬 내일을 열어 나갑시다.